



SNS 매거진

Beautifulday





03p 동화로 보는 정치후원금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04p 위원회 소식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위촉!
2018 유권자정치페스티벌



14p 카드뉴스
블로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16p 특별기고
그 여름, 리가는 밤보다 노래가 길다



06p 기획연재
영화 속 선거 ②
영화 <완벽한 타인>. 정치인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08p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및 개요

10p 생활정보
오늘부터 시작하는
티끌 모아 태산

12p 기획기사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투대회' 생생 후기!

18p 투표보고 세계보고
톡톡튀는 선거제도를 소개합니다

20p 특별기고
겨울 주말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겨울낚시"어때요?

22p 카드뉴스
슬기로운 민주생활 "기부행위편"

24p 특별기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소통

27p 독자마당
맛글을 만나다



발행일 2018. 12. 01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홍보과
구독문의 02-503-2792
ygh978@korea.kr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볼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동화로 보는 정치후원금

-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



01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네...

02 백설공주야,
백설공주야-
내가 도와줄까?

03 잠깐!!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우리가 도와줄게요!!!

신용카드는 물론 간편결제로도
지금 바로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난 카드포인트로
후원할래요~

투명한 정치, 내 손으로 만들어요!

06 투명한 정치,
내 손으로 만들어요!

정말이니?
정치후원금이 없었다면
마녀의 불법자금에
넘어갈거야!
정말 고마워!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위촉!

9월 17일 영화배우 이채은씨와 뮤지컬 배우 신금숙·여신우·윤이나씨가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로 위촉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이채은 씨는 영화 '베테랑',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웹드라마 '오구실'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였으며, 제7회 지방선거 웹드라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사전투표 사무원 역할을 훌륭하게 선보이며 한 표의 소중함을 진한 감동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신금숙·여신우·윤이나씨는 뮤지컬과 연극무대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배우들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뮤지컬 '군수선거'에 출연하여, '우리 동네 속 선거 이야기'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위촉된 서포터즈 4명은 향후 위원회 주요행사와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소통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각종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요작품
2018년 중앙선관위 웹드라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주연
드라마 SBS 낭만닥터 김사부, 오구실(웹드라마) 등
영화 다시,올래, 비밥바블라, 오피스, 베테랑 등

※ 수상
2017 서울 웹페스트 여우주연상
2011 공주 신상옥 청년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이채은

※ 주요작품
2018년 중앙선관위 주최 뮤지컬 '군수선거' 주연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프로듀서스, 갬블러, 맘마미야, 블러드 브라더스, 상임인더레인, 명성왕후 등
연극 동작그만



신금숙

※ 주요작품
2018년 중앙선관위 주최 뮤지컬 '군수선거' 주연
뮤지컬 정조, 클럽코스모스, 여우야 뭐하니, 울지마 톤즈, 더 초콜릿, 뉴 보일보잉 1탄 등
연극 대머리여가수, 노틀담의 꼽추 등



여신우



윤이나

※ 주요작품
2018년 중앙선관위 주최 뮤지컬 '군수선거' 주연
뮤지컬 겨울왕국 눈의 여왕, 군수선거, 루나틱
연극 시크릿, 뷰티풀라이프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 2018 유권자정치페스티벌

'2018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이 11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양일간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를 캐치프레이즈로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 서로 소통하고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권자가 직접 준비하고 개최한 행사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주최하는 축제가 선거연수원에서 열려 더욱 뜻 깊다'는 소감과 함께 이번 정치 페스티벌을 통하여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가 즐기고 체험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선거·정치, 장애인, 다문화, 문화예술 등 59개 유권자 단체가 '유권자의 삶과 정치를 말하는 유권자 정책토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정치 전시·체험', '선거와 정치를 소재로 한 문화공연' 등 46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권자 정책토론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정치문화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청년정당인들이 함께하는 청년정치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다문화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방안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 유권자·정치인 소통한마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투표를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드론! 투표와 함께해요'와 사전투표 및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 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선거야 놀자!' 등 다채로운 전시 체험이 준비되었고,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로 듣는 역사인물 콘서트', 선거참여를 주제로 한 마술 공연 '선거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해 선거연수원에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도 이번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동체의 삶과 시민성'을 주제로 독일, 스웨덴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은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강원대 박경철 교수의 발표 후 김래영 단국대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를 모시고 '대의민주주의의 무기속위임원칙과 공익 실현'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였습니다. 제2세션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교육 : 독일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Reinhard Fischel 베를린 주 정치 교육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Svan Schwersensky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Jord Michael Dostal 서울대 교수, 이종희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독일과 한국의 시민교육에 대해 비교 분석하며 시민교육의 새로운 포맷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유권자 정책토론과 국제 심포지엄, 전시·체험 및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 이번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만나 소통하고 이를 계기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 정치인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누군가에 대해 완벽히 안다는 건,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고작 몇 개월에서 몇 년 밖에 함께 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성향도 쉽게 단정한다. 하지만 몇 십년을 함께한 부부나 친구도 서로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완벽한 타인>은 그 이유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영화다. 사람은 누구나 3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중 하나는 공적인 영역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나이며 마지막 한 사람은 '비밀의 나'라고 한다. 앞의 두 가지 '나'가 공개된 나라면 '비밀의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인 셈이다. <완벽한 타인>은 바로 이 '비밀의 나'를 공개하게 된 순간의 이야기다.

오랜 시절을 함께한 남자 친구들이 있다. 어느 날 이들이 부부동반으로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그들의 아내들 또한 이미 수차례

에 걸쳐 만나온 듯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나누며 옛날 이야기와 요즘 고민들을 털어놓는 와중에 한 사람이 게임을 제안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모두 꺼내놓을 것. 저녁 식사가 끝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오는 메시지와 이메일, 전화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 것. 누구나 '비밀의 나'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배우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비밀의 나'가 있다는 걸 선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는 비밀이 없다며 스마트폰을 꺼내놓는다. 영화를 보면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친구의 전화, 애인의 전화, 가족이 보내오는 '카톡'과 각종 스템메시지... 평소에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정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는 순간,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낸다. 영화 속 누군가는 자신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의 성형수술 계획을 털어놓게 되고, 또 누군가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의도치 않게 드러내게 된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연애와 성적 취향이 튀어나오는 것도 물론이다. 이에 따라 코믹한 해프닝이 발생하고, 뜻밖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는데, 굳건했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일도 벌어진다.

<완벽한 타인>을 보고난 후, 이런 형태의 게임을 정치인들에게 활용해보면 어떨까 상상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이 대표선수를 내세워 선거전을 벌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자. 합동 토론회처럼 TV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제안에 쉽게 응할 사람은 없겠지만, 생중계도 중이려면 국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내놓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들과 비밀스러운 관계의 사람들도 중계방송을 보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꺼낸 스마트폰에 숨겨진 사진과 메시지, 통화내역들을 살피는 쇼는 어떨까? 이런 것 가능할 것이다. (실제 '완벽한 타인'의 배우들은 스마트폰 배경화면과 최근에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화홍보 영상을 찍었다.) 먼저 사진폴더에 담긴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카톡'을 열어 최근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본다. 이어서 최근의 통화내역들을 살펴본다. 문자메시지 어플을 뒤져본다면, 그들이 받는 스템메시지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어플을 뒤져본다면 그들이 최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완벽한 타인>에 빗대어 상상한다면, 후보자들의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인과의 카톡에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뒷담화가 밝혀질 것이다. 어떤 후보자는 다른 후보와 협상 중이던 단일화 계획이 탄로날지도 모른다. 자상한 이미지의 후보자가 사실 자신의 보좌진에게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숨겨진 음모와 비리를 알게 될 수도 있다. 비밀스러운 연애? 내가 이 쇼의 책임자라면 그 정도는 물어두고 가겠다.

실제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런 쇼가 벌어진다면, '인권침해'란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분명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인들도 '비밀의 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믿는 후보자를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깨끗하다고 하면서 진짜 깨끗한 정치인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 밖에. 또 선거 때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얼굴이 바뀌는 정치인을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만난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 때는 '비밀의 나'를 감추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비밀의 나'를 드러낸다. 그러니 선거 전에 그들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유권자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사람과 사람은 몇 십년을 함께 살아도 '타인'일 수밖에 없다. 공적인 나와 개인적인 나로서만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비밀의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나'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 덕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



그런데 후보자의 비밀들을 파헤친다고 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비밀이 없는 정치인이 정말 좋은 정치인일까?

<완벽한 타인>에서 '비밀'은 서로를 속이는 음모인 동시에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존재다. 어차피 사람과 사람은 몇 십년을 함께 살아도 '타인'일 수밖에 없다. 공적인 나와 개인적인 나로서만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비밀의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나'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 덕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 어쩌면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모든 정치인들이 "난 부끄러울 게 없다"고 말해도, 그들 역시 '비밀의 공간'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비밀의 나' 덕분에 정치의 영역에서도 '공적인 나'를 활동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비밀이 곧 정치의 비결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거 때만 되면 뉴스는 '폭로'로 도배된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밀을 찾고, 그들의 숨겨진 공간을 검증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면 정작 중요한 그들의 정치적 능력을 검증할 기회와 시간은 뺏기게 될 것이다. '폭로'보다는 '논쟁'이 많은 선거가 우리의 미래에는 더 좋은 선거일 듯, 서로의 스마트폰을 끄집어내는 토론회는 열리지 않는 게 좋겠다.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하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회 2019.3.13(수) 실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련법규
'18.9.21.	금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18.9.21. 부터 '19.3.13. 까지	금 수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8.12.20. 까지	목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 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 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하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농협정관 §69①2 산림규약 §8①2
'19.1.19. 까지	토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 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 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하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협규정 §8①1
2.22. 부터 2.26. 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26. 부터 2.27. 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28.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3.2. 까지	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3.3.	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0일	법§15①
3.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규§18①
3.5.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②-§43
3.8.까지	금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규§25①-②
3.11.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 2일까지	법§45①
3.12.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13.	수	투·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4.12.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44

조합장선거 개요

01 선거일

2019.3.13.(수) ※투표시간 : 07:00 - 17:00까지

02 선거기간

2019.2.28.(목) - 3.13.(수)

03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기부행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

선거권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선거)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농협법 §26, 농협정관 §63①, 수협법 §27, 수협규정 §5①, 산림법 §24, 산림규약 §3①



04 후보자 등록

2019.2.26.(화) - 2.27.(수)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 2018.12.20.까지 (농협·산림조합), 2019.1.19.까지 (수협)

05 당선인 결정방법 (법§56)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법 §41②2, 농협정관 §86①,
수협규정 §93①, 산림규약 §42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정관 §86②, 수협규정 §93③,
산림규약 §42②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농협정관 §86③, 수협규정 §93④,
산림규약 §42③

오늘부터 시작하는

티끌 모아 태산



1 오늘부터 시작하는
티끌 모아 태산

1 매일 적금 활용
소액씩 매일 적금하는 적금상품을 활용해보세요!
키카오뱅크 자유적금, KB메일메일적금, 위비 썬테크적금 등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2 가계부 쓰기
꾸준히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새는
소액 소비를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
매번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보세요~

3 공과금은 자동이체 납부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은 생활에 꼭 필요하죠!
카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공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4 정리정돈
집에 있는 물건을 또 구매할 기억이 있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악해두면
필요한 물건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투명한 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정치후원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가 되면 15~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명예기자단이 전하는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생생 후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예선, 본선이 지난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16기 선거명예기자단' 남가희, 권이현 기자가 참가했는데, 참가자로서 함께한 '열린 토론대회'는 어땠을까요?

참가 결심부터 신청까지...

권이현 기자 올해 들어 몇 번의 토론대회에 참가했지만 참가신청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한 경우는 열린토론대회가 유일했어요. 열린토론대회에 꼭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국내 토론대회 중 '끝판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였어요. 4학년이고 내년을 기억하기 힘들 것 같아 '그냥 부딪히자'라는 생각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남가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대회만 1년여를 기다렸습니다. 선착순 120명 안에 들어가 토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신청 당일, 서버가 열리기 10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다행히 40번대에 들어 토론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큼 소중했던 준비과정

권이현 기자 토론논제가 공표되고 실전 토론대회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마음이 급해져 대회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학술 자료를 전부

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투표 자료를 좀 더 중점적으로 찾아봤어요. 온라인투표는 자료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토론이고, 의무투표는 논리와 공감대 형성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투표 자료가 훨씬 많은 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온라인투표든 의무투표든 그 도입에 있어서 둘 다 결국 투표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베이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제도를 둘러싼 헌법적 고찰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를 통해 재밌는 시각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온라인투표 관련 내용이었죠. 시민과 투표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선거는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공공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모든 절차에 있어 국민에게 블랙박스라 남는 부분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투표는 기계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니까,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용지를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현행 종이투표와 비교하여 시민에 의한 검증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남가희 기자 저 또한 초반 몇 주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틈틈이 자료는 찾아보았답니다. 매일 똑같은 단어를 검색했지만 늘 다른 자료와 주장을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평소에는 '온라인투표'나 '의무투표제'에 대해 단순히 생각만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구축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있었



어요. 자료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토론 대회 상대 팀들은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찾아오던데 그런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고 구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답니다.

떨렸던 토론 대회 당일!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그 때의 감정

권이현 기자 평소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믿는 편인데 막상 토론 날이 되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웬만한 자료는 다 봤는데도 걱정이 좀 체 떨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커진 기분이었어요. 토론대회는 토너먼트식으로 치러지기에 대진운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변수에 따른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면 되는 건데,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토론하면서 느낀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매너가 토론을 만든다. 둘째, 팀원과 소통이 부족했구나.

첫째는 상대 두 팀과의 경기를 비교하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한 팀과는 경기가 끝나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상대 팀이 저희 말을 곡해해서 되받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면 다른 한 팀은 경기가 끝나고 승패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았어요. 경기 전부터 먼저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해주었고, 토론 중에도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장을 전개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발언하고 있을 때 보이는 경청하는 제스처와 온화한 표정을 보며 고맙기까지 했어요. 토론에서는 매너도 중요하다고 느꼈죠.



둘째는 자기반성인데, 우리가 준비한 논거에 대한 해석이 팀원끼리도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간 논의하는 시간이 적어 생긴 부작용이었죠.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했다면 각자 놓친 부분을 서로 보완했을 텐데 아쉬워요.

남가희 기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토론 공포증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와 친구들 앞에서 토론하다 크게 실수한 이후로 토론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말 못 할 '약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 없는 '숙제' 같았고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대회 전날,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다가 일어나 자료를 들여다 보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산에서 대전까지 잠도 못 자고 올라가 토론대회에 임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자 긴장이 풀려왔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가 끝나고 나의 토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고, 그 결과 두 번째 경기에서는 큰 실수 없이 침착하게 토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트라우마'를 극복한 셈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도 했고 이후에는 토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권이현, 남가희 기자 모두 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은 대회였습니다. 대회 시작부터 '아카데미 토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던데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승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슈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법,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요. 앞으로도 '열린 토론대회'가 계속해서 개최되어 토론의 즐거움에 대해 배울 기회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이현(좌), 남가희(우)
제16기 선거명예기자단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01

A씨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온라인투표를 이용한 동별대표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킹이 있더라도 내가 투표한 결과가 조작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안심하고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투표결과를 보거나 바꾸면 어떡하지?

02

많은 분들이 가지는 불안감, 궁금증... 이를 해소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03

"온라인 투표 편리하지만, 여전히 위험성 높아서..."
"아마추어도 간단히 해킹... 유명 전자투표 업체 '해킹' 데브리"
11년 소년, 미국 주 선거 웹 투표 시스템 10분 만에 해킹

해킹·조작 등 투·개표결과와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해킹, 조작 등에 대한 의혹, 불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선거 등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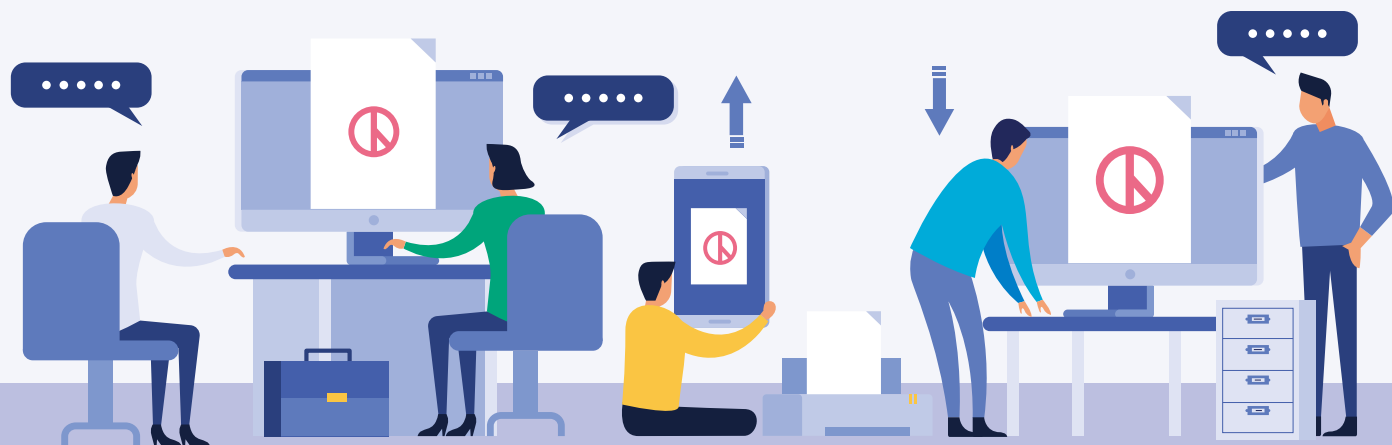
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축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에 투표데이터 등을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06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온라인투표분야에 새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여름, 리가는 밤보다 노래가 길다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의 인상적인 여름밤 풍경

서늘한 밝음, 초여름 늦저녁 리가의 첫인상은 그랬다. 전 세계 이백여 나라의 수도를, 북극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짊어 내려가다 보면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지나온 다우가바 강이 1,000km를 흘러 북유럽의 발트해와 만나는 곳에 리가가 있다. 이처럼 위도가 높은 리가는 아주 길고 어두운 겨울과 아주 짧고 눈부신 여름이 순식간에 교차하며 냉정할 만큼 낯선 두 개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비행기에서 내린 시각은 오후 8시, 6월의 열아홉 번째 밤. 리가의 새파란 밤에는 열은 분홍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새하얀 달과 어울릴 법한 서늘한 바람이 말간 햇볕 아래 불어오는 여름밤. 혹독한 겨울을 보상하듯 하루 열여덟 시간 햇빛이 쏟아지는 리가의 여름엔 모두가 가까이 밤잠을 설친다. 구시가의 돛 성당 앞에선 화요일 밤에도 라이브 음악이 울려 퍼지고, 24시간 문을 여는 운하 옆 꽃가게의 연인들에게 '시간이 늦어서'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일 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가, 크리스마스와 함께 최고로 큰 명절인 이 나라에서 여름밤을 눈감고 보내는 건 심각한 시간 낭비로 여겨진다. 특히나 하지 밤에는 잠이라도 눈을 붙이면 일 년 내내 졸린다는 속설이 있어 사람들은 밤새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하며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 리가에 도착해 첫 두 밤은 지지 않는 해 때문에 잠을 설치고, 셋째 밤은 하지 축제를 촬영하다 다음 날 오전 6시가 되어서야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에 쓰러졌다. 시차 적응은커녕 낮과 밤의 경계가 흐트러져버리는 게 라트비아의 여름이다.



따뜻한 햇볕을 좋아해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며 여름을 쫓아다니는 나지만, 아찔할 만큼 길고, 서늘하게 우아한 발트해의 여름은 무척 새로웠다. 초봄부터 거리를 데우던 델리의 후텁지근한 바람, 그늘 하나 없이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던 테이블마운틴의 뜨거운 햇볕도 겪었지만, 리가의 잠 못 드는 여름은 낮과 밤, 꿈과 현실을 뒤섞어버리는 묘한 경험이었다. 응당 어두워야 할 시간에 달도 아닌 해가 휘영청 밝고, 응당 꿈을 꾸고 있어야 할 시간에 모두가 뭔가를 함께 하며 꼬박 지새우는 밤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밤은 단연 '라트비아 노래 축제'의 마지막 공연이 있는 밤이다.

노랫소리에서 시작된 발트의 찬란한 독립

라트비아인들에게 노래는 한국인들에게 만세와 같다. 1919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만세를 불렀고, 1989년 라트비아인들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7,000km 남짓 떨어진 두 이웃 나라의 국민들이 70

년의 세월을 넘어 자유와 민주, 독립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50년간 소비에트 연방에 합병되어 있던 발트해의 세 나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600km의 인간 띠를 만들어 자유를 노래했다. 그렇게 작은 발자국들이 모여 만든 인간띠는 '발트의 길'이라 불리며 독립을 향한, 평화롭지만 단단한 외침이 되었다.

오늘날 세 나라의 수도에 가면 '발트의 길'을 기념하는 똑같은 모양의 발바닥이 거리에 새겨져 있는데, 평범한 어른의 발자국 크기라 일부러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지금도 그 앞을 서성이다 보면 30년 전 그 길 위에 발자국을 보낸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마침 악보를 한 아름 든 채 발자국 위를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혹시 30년 전 어디선가 노래를 부르셨냐고 여쭙보았다. "그때 저는 라트비아 남부 바우스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리투아니아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비드제메를 지



나 에스토니아로 이어지는 큰 도로죠.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자유를 위해 노래했어요. 서로 노래를 주고받던 그 순간의 감정은 절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길 위에 발자국과 목소리를 보낸 평범한 사람들, 발트의 독립은 그 노랫소리에서 시작됐다. 1940년 소비에트 연방으로 합병되었다가 1991년 민주주의 '라트비아 공화국'으로 독립하기까지 노래는 라트비아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기록된 것만 3만 곡이 넘는 라트비아 전통 민요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라트비아인'으로서의 숨이 자 기억인 것이다. 50여 년 동안 이어진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도 이 노래들을 빼앗긴 못했다. 19세기부터 5년에 한 번 열린 노래 축제는 '라트비아'의 이름이 사라진 동안에도 계속되었고, 2차 대전 이후 망명과 추방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진 라트비아인들은 또 다른 대륙에서 노래를 이어갔다. 그런 라트비아인들에게, 노래란 온 마음을 담았던 몽글한 기억이고, 노래 축제는 5년에 한 번 그 기억을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5년에 한번, 가장 큰 소리로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라트비아

2013년 이후 5년을 기다려 맞은 2018년, 나는 이 노래의 여름을 촬영하기 위해 대사관을 드나들며 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노래 축제에 대한 라트비아인들의 애정은 하지 무렵 햇빛을 향한 열정과도 같아서 이방인의 호기심은 비할 것이 못 되었다. 라트비아의 인구는 2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노래 축제 때는 4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오토에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 리가로 몰려든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노래를 듣고자 찾아오는 수만 명의 사람이 더해져 5년에 한번 이 작은 도시는 아주 큰 노랫소리로 꽉 찬다. 실제로 축제가 열리

는 동안 리가에서는 노랫소리를 피할 수 없다. 30년 전 손에 손을 잡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래하던 이들은 노래로 되찾은 골목, 광장, 운하에서 그 시절의 노래를 부르고 듣는다. 구시가의 수많은 블록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합창단들을 만나고, 곳곳의 스크린에서는 도시 어딘가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이 생중계된다. 이맘때면 노래가 잘 보이고 들리는 곳이 명당이라, 리가의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노래가 나오는 대형 스크린 옆에 팝업 스토어를 열곤 한다. 테이블엔 라트비아 전통 민요의 악보가 그려지고, 메뉴판에는 음식 이름 대신 민요의 제목이 적힌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가 '밀양 아리랑' 악보가 그려진 테이블 위에서 '닐리리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도라지 타령'이 울려 퍼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길 때,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소녀들이 '뱃놀이' 쿠키를 사 들고 다음 공연을 하러 걸어가는 모습이 이맘때 리가의 흔한 풍경이다. 이 여름 리가의 공기는 노래인 셈이다. 짧은 여름이 절정을 향해 가는 7월의 여덟 번째 밤, 일주일간 이어진 축제의 '마지막' 노래를 듣기 위해 나는 메자 공원으로 향했다. 오후 7시, 운 좋게 예매에 성공한 3만 5천 명의 관객들이 입장을 시작하고, 지난 5년간 라트비아 곳곳에서 노래하던 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작은 점이 되어 단 하나의 무대를 채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무대가 꽉 채워진 순간, 라트비아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인구 200만의 나라는 그렇게 5년에 한 번 가장 큰 소리로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다.

보통의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같은 노래를 하고, 백이 모여 한 방향을 바라보면 일어나는 기적. 만 2천 명의 평범한 이웃들은 세 시간을 꼬박 서서 울고 웃으며 서려여덟 곡을 불렀다. 어느덧 자정이 되어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줄에 이르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은 사라지고, 5만여 명의 목소리가 처연하고도 웅장하게 서로의 걸을 지킨다.

"태양은 우리의 어머니고 다우가바 강은 우리의 고통을 보살펴주네. 천둥은 악을 내쫓으니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네."

자정을 넘어 약속된 공연 시간이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자, 진짜 '노래의 밤'이 시작했다.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객석의 사람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노래 축제의 마지막 날은 일요일, 하지만 다음 날은 공휴일이니 해가 뜰 때까지 누구나 마음껏 노래하는 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노래를 하며 나눈 그 온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땅을 감싸줄 것이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노래처럼 꺼질 듯 꺼지지 않는 100년의 세월, 그 속의 짧은 꿈 같았던 서늘한 여름 숲에서 나도 한 줌의 온기를 담았다.



김기람 PD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속으로> PD

※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표보고 세계보고

톡톡튀는 선거제도를 소개합니다

투표보고 세계보고

01



세계 최초의 온라인 투표, 에스토니아

2002년 세계 최초로 전자 신분증이 발급되어 2005년 10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국가입니다.


02



행복지수 1위 국가,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에서는 만 3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투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지만 방송으로 공개되며, 이를 유권자들의 표심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네요!

03



손톱을 보면 투표 여부를 안다?! 필리핀

투표 마지막에 잘 지워지지 않는 파란 잉크를 손톱에 묻히는 필리핀! 중독투표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04



천막이 없는 선거 현장, 이란

이란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밀폐된 공간도 없고 누군가 훑었는지 얘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

05





투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의무투표제, 호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호주, 1925년부터 도입된 의무투표제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일까요? 투표율이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06

국가마다 투표 방식은 다르지만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 않을까요?

소중한 선거권 행사,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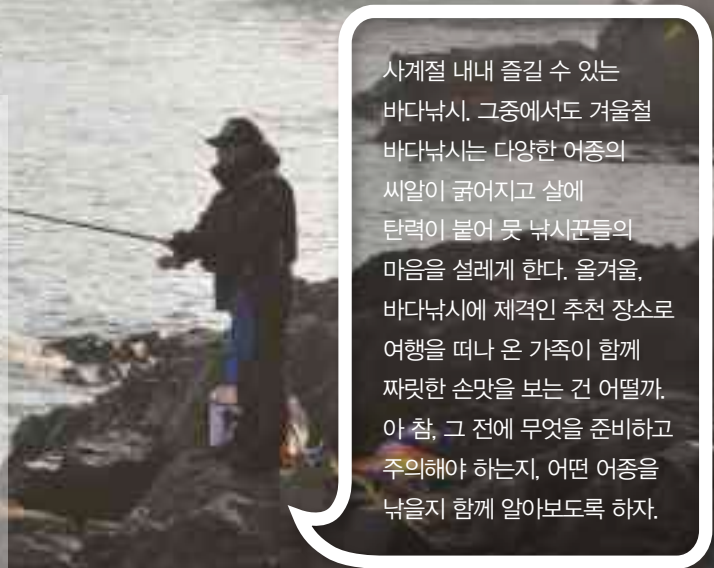




겨울 주말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겨울낚시”어때요?

바다낚시의 참맛 “겨울 낚시”

겨울 낚시만의 매력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처럼 명확한 사계절은 레저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역시 계절에 따라 마니아들로 북적이는 수많은 레저 종목이 있다. 개중에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꼽으려면 단연 ‘바다낚시’다.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수온은 대부분 최하 9도에서 최고 30도 사이에서 유지된다. 이처럼 계절이 만든 다양한 수온대는 각각의 온도를 좋아하는 여러 어종을 갯바위 가까이 불러모으고 이 과정에서 ‘꾼’들이 선호하는 계절이 생긴다. 봄가을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니 당연히 많은 낚시인이 선호한다. 하지만 마니아들은 ‘겨울철 바다낚시’를 손꼽아 기다린다. 왜냐하면 저수온기로 접어들면서 대상 어종의 씨알이 점차 커져 겨울 낚시만의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겨울 낚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추위가 들어올 틈 없는 겨울낚시의 매력에 빠져보시기를 권한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 그중에서도 겨울철 바다낚시는 다양한 어종의 씨알이 굵어지고 살에 탄력이 붙어 낚시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올겨울, 바다낚시에 제격인 추천 장소로 여행을 떠나 온 가족이 함께 짜릿한 손맛을 보는 건 어떨까. 아 참,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어종을 낚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제공 낚시춘추

여수 금오도

바다낚시 마니아들이 1순위로 꼽는 어종은 우아한 자태와 손맛에 입맛을 겸비한 ‘감성돔’이다. 겨울철 감성돔 낚시는 대부분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새벽배를 타고 출조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손맛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전남 여수의 “금오도”를 소개한다. 금오도는 규모가 크고 방파제가 많은 섬이다. 그렇기에 섬 여행을 겸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도 손맛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금오도 내에서 직포 방파제와 두포 방파제는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니 기억해두자. 금오도는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다. 두 곳의 방파제에서 낮에는 고등어도 심심찮게 입질을 하므로 온 가족이 낚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금오도와 이웃한 안도까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직벽을 따라 비경길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둘러볼 곳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 식당, 펜션, 슈퍼 등 기본 편의시설도 충분하다. 여수 돌산의 신기항에서 차량을 실을 수 있는 도선으로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배편도 많아 여행스케줄을 계획하기에도 쉽다.

금오도 주소 전남 여주시 남면 심장리

돌산도 신기항 문의 한림해운 061-666-8092



제공 낚시춘추



제공 낚시춘추

포항 신항만방파제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두 개의 대형 방파제를 합쳐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포항의 ‘신항만방파제’로 전문낚시인들에게 유명 갯바위 이상으로 각광받는 낚시터이다. 감성돔은 물론이고 볼락, 학꽂치, 뽕에돔 등 낚이지 않는 어종이 없을 정도다. 조황이 좋지 못한 날은 고등어, 전갱이 등이 손맛을 달래준다. 어종과 씨알 면에서 여느 갯바위에 뒤지지 않는 조황을 배출하니 타지에서도 발길이 꾸준한 편. 연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동방파제가 1,080m, 해상에 축조된 북방파제가 약 2,600m에 달하는 초대형 방파제여서 낚시구간이 길고 넓다. 여건이 좋다 보니 큰 낚시대회도 자주 개최된다. 규모가 커 방파제 내에서도 좋은 포인트가 갈리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해상에 축조된 북방파제를 추천한다. 북방파제는 항만 내의 낚시배를 타고 진입해야 하는데 낚시 가능 시간은 일출 후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동방파제 역시 군부대의 통제로 오후 10시까지밖에 낚시를 할 수 없으니 밤낚시는 불가능하다.

포항의 신항만방파제는 접근성이 좋고 겨울바다로 유명한 칠포해수욕장도 5분 거리다. 또한 포항부터 시작되는 동해안 드라이브코스는 겨울낚시 후의 여행코스로 고려할만큼 아름답다. **포항 신항만방파제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제공 낚시춘추

전남 완도군 청산도

마지막 겨울낚시 여행지는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이다. 이곳은 봄이 되면 섬마을 주변이 온통 아름다운 유채꽃으로 뒤덮인다. 영화 <서편제>와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졌다.

청산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완도항에서 차량을 싣고 들어갈 수 있는 차도선이 자주 있고 출항 후 50분이면 청산도의 관문 도청리 항에 도착한다. 사실 청산도의 갯바위 바다낚시는 대부분 완도항에서 낚시배를 타고 들어가 낚시만 하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다. 섬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바다만 보다 돌아오는 셈인데, 여유를 가지고 섬 안쪽으로 들어가 겨울여행의 재미를 누리보길 바란다.

영락리 방파제에서 다양한 어종의 낚시가 가능하지만, 주변 갯바위로 데려다주는 작은 배도 청산도 내에 있어 감성돔 낚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겨울철 청산도의 감성돔 조황은 완도권 전체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한다. 낚시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유명 포인트가 준비하므로 겨울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가족과 함께한다면 방파제에서 고등어, 학꽂치 등을 낚는 재미가 쏠쏠하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에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청산도 겨울 낚시여행의 매력이다.

청산도 주소 전남 완도군 청산면

문의 완도 여객선매표소 061-552-2904

청산농협(차도선) 061-552-9385



제공 낚시춘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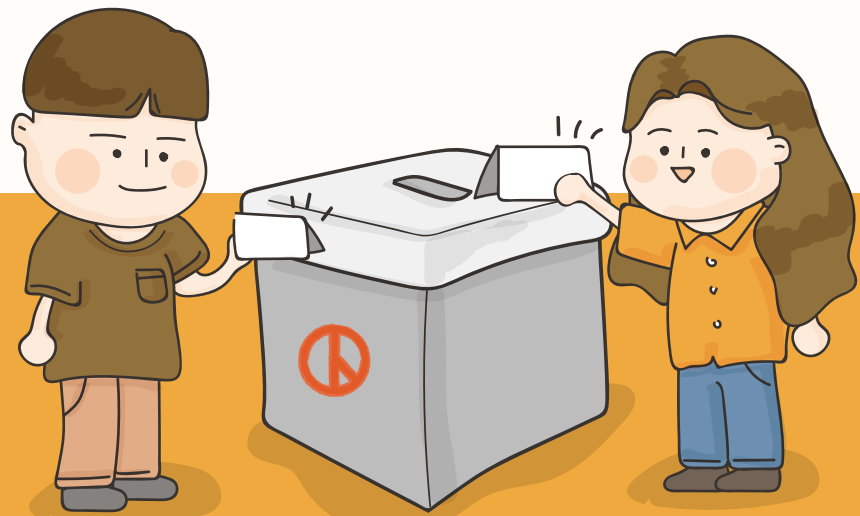


제공 낚시춘추

박진철 프로
(사)한국프로낚시연맹 KPFA / 기획실장, 사무총장, 사업본부장, 본부장사 역임, KBS-2 라디오 낚시칼럼니스트, FTV (주)한국낚시채널 '박진철의 확률낚시' 진행, 현재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출연중

기부행위편

즐거로운 민주생활



이

02

000당 000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지난 선거와 관련하여 산악회에 참석해 10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시대가 어느때든
ㅋㅋ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 생각해보니
이런 일도 있었지...

03

04

10년 전, 4-2반 반장선거

Do You know pizza?

햄버거 말고 피자 더!

투표를 통해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로 소풍갈 수 있도록 건의드릴게

내가 안장되면 매주 맛있는거 쏘라고!

공용 연필, 지우개 등을 마련해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게

그 결과...

피자! 피자! 피자!

역시 돈이 최관가...

나 빼고 나먹은 3명 고마워... ㅜㅜ

05

어릴 때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선거라도 깨끗하게 당당하게 임한 내가 자랑스러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릴 때부터 하나씩!

치킨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그 결과는 오래가는 건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공직선거의 임무보예정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 참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소통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소통

민주주의의 꽃, 토의와 토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의와 토론이란 여론수렴 방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가진 수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려면 토의나 토론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토의 및 토론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고 대화를 만들어 관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다는 건 모두 알지만, 그 방법을 모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토의와 토론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 중 하나

실제로 저는 '국회의장배 고교토론왕'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연한 학생들이 토론을 정말 잘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없이 뿌듯합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들도 처음부터 토론을 잘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수년간

의 방송 생활 중 개인적으로 터득한 말하기기술 즉 소통하는 방법을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소통의 시작 : 7대 3의 법칙

'7대3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처음부터 수치가 나오니 뭐 거창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이라 이미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다만 실천을 못 해서 문제인 거죠. 7대3이란 서로 대화할 때 10분이 주어진다면 7분은 듣고 3분은 얘기하는데 할애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 주장을 무턱대고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얘기를 먼저 그리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멘토가 말하기 보다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마 경청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비율이 7대 3이란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하자면 내 얘기는 접고 아예 듣기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의중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이 경청이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소통의 기본 : 역지사지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라는 사자성어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 말할 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받아들일까 상상해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문제가 될지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신중한 편입니다. 예전에 친구로부터 상처를 입고 더욱 조심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주 유쾌하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전화기 너머로 저를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앞뒤가 다른 친구의 모습에 실망했고 거기에 대해 언급은 못 했지만 서로 소원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다 싶어 조심하게 됐죠.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순간 대화는 어려워진다

더불어 역지사지를 통해 상대방의 수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천차만 별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상대가 아이라면 수준에 맞는 단어와 말을 골라야 합니다. 또한 어른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어법과 예의를 갖춰야 하고요. 같은 나이 또래라 할지라도 자라온 환경과 지식, 관심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주가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출 줄 알아야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란 말이 있는데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대화를 잘 못 한다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진 것과 그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자기수준에서 전달하면 상대방은 전혀 이해를 못 할 것이고 당연히 대화는 단절되겠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방법 : 올바른 표현법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소리가 너무 작거나 얼버무리는 등의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만 하면 다 죽었어"라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입을 열면 듣는 사람은 정말 다 죽습니다. 답답해서 죽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잘 포장해주는 것이 바로 표현력입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앞서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려면 꾸준히 꽤 오랜 시간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놀이라는 방법을 권합니다. 어른이라고 상상하며 노는 놀이가 소꿉놀이잖습니까? 마친가지로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발성과 발음을 연습할 때만큼은 지금 방송을 진행하거나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아나운서라고 상상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질적으로 효율적인 연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만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외에도 전달하는 내용의 논리성, 상황에 맞는 이야기 등 또 다른 중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며 당부드립니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만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현욱 아나운서
KBS 26기 공채 아나운서
생생정보통, 체험 삶의 현장, 청춘 토크 콘서트-통일Dream 출연
'머릿속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 '스토리텔링 스피치' 저자

*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정치후원금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POINT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하중
집단 이기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내마들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의 의견제시에
필요한 투표는 꼭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니깐요.

즐거운세상
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S
정치후원금,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니 ㅎㅎ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icb1101
잘 몰랐던 정치후원금이
지만 앞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해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Laurel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건강한 정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올바른 정치 문화
조성에 일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썬유니
퀴즈로 풀어보는 정치후원금, 머리에 쓱쓱
들어오는거 같아요.

너에게로풍당
유익하고 알찬정보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즐거운 공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블로그를 응원합니다.~^^

worldwideeye
익숙한 예시를 보며 끝까지 글을
읽고나니 생소하게 느껴졌던
정치후원금이 왜 필요한지,
왜 권력을 여러 방법으로 견제해야
하는지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마마13
가끔씩 정치후원금 불법자금
소식에 골치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포스트!
감사합니다.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27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